



#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2)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발명에 대해 지나친 경외심 같은 것을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발명은 푹푹하고 많이 배운 학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하면 미국과 일본은 발명에 대해선 자신감이 철철 넘친다. 미국과 일본 국민은 스스로를 발명가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그들은 발명을 생활로 여기며 오락으로 삼기도 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발명의 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만 있다면 학력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든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이쁜 것이 많거나 성인이 되면 여러가지 사사로운 제약 조건이 많아지게 된다.

발명을 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 주위에서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을 찾아서 불편한 점과 개선방법을 차례로 생각해보자. 이것이 성공하면 곧 발명가가 되는 것이다. 이 좋은 예로 +자 나사못의 발명가인 필립을 들 수 있다.

“어휴! 이 +자 나사못은 홈이 너무 얇아서 드라이버가 자꾸 벗어나는군...”

—자 나사못을 박다보면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런 경우엔 대개의 사람들은 짜증을 내며 드라이버를 내던지고 만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이다. 이럴 땐 차분히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립은 나사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잠시 후 나사못 머리에 또 다른 홈을 파 넣었다. 이것으로 새로운 발명품인 +자 나사못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필립은 발명가가 되었다.



## 자연은 발명의 보물창고다

인간을 에워싼 자연 속에는 예나 지금이나 탐구해야 할 과제가 수없이 많다. 또 앞으로의 과학 발전이나 발명에 힌트가 될 현상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은 발명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허법 제2조 제2항은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의 현상이 힌트가 된 발명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매직테이프'와 '페니실린'을 들 수 있다.

매직테이프를 발명한 '도메스 트럴'이라는 스위스 사람은 사냥이 취미였다. 어느 날 사냥할 동물을 찾아 숲 속을 헤매고 있을 때 밤송이가 그의 옷에 달라붙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현상이었으나, 그는 이 원리를 이용하여 매직테이프를 발명했다. 이 매직테이프는 아직도 전세계에서 이용되

고 있다.

페니실린의 발명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10년이나 연장시켜 준 플레밍의 업적도 자연의 현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구균의 순수 배양 연구에 몰두하던 중 항온기 안의 유리 접시에서 구균과 다른 '콜로니'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콜로니 주위에 구균이 한결같이 녹아 있었다.

'이 푸른 곰팡이는 구균을 사멸시키는 성분을 분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무심코 넘겨버리기 십상이었던 자연의 현상이었으나 플레밍의 눈과 예감은 이윽고 사망률 1위였던 폐렴으로부터 유아를 살려내고, 화농균을 구축하는 페니실린을 발명했다.

푸른 곰팡이를 이용한 지혜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표구

사에서 사용하는 풀은 이상하게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풀을 만들어 며칠간 공기 속에 방치해 표면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도록 한 다음 표면의 곰팡이를 제거하고 나면 그 풀은 썩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비법인가. 자연의 현상을 슬기롭게 이용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받는 마음가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발특 9808**

